

단 신

「郵便홀리데이 서비스」-일본-

최근의 송금결제 서비스-일본-

「향토 그림엽서」-일본-

盲人用 엽서 발행-일본-

「郵貯 홀리데이 (holiday) 서비스」

- 일본 -

금융서비스 제공시간의 확대니즈 (needs)에 대응하기 위해 1991년 4월 7일부터 전국 약 2천局에서 「郵貯(우편저금) 홀리데이서비스」를 실시했다. 서비스 첫 날인 4월 7일은 비가 왔으나, 약 4만 3천건의 이용이 있었다. 순조로운 출발이었다. 다음주 4월 19일은 약 6만 5천건으로 50% 증가했고, 세번째인 4월 21일에는 약 7만 7천건으로 첫날에 비해 약 2배에 가까운 이용이 있었다.

「郵貯 홀리데이서비스」는 민간금융기관의 「선데이 बैं킹 (sunday banking)」에 비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매력이 있다.

그 첫번째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수수료 를 일체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. 은행 등에서는 인출할 때마다 금액에 관계없이 103엔(자행취급)내지 206엔(타행취급)의 수수료가 들지만 우편 저금은 무료이기 때문에 이용하기 쉬운 서비스이다.

두번째로는 일요일외의 주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. (취급시간 9시부터 17시까지) 정월 초 3일까지와 5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새로운서비스의 제공이나 서비스개선에 수반하는 큰 시스템변경이나 기류의 교체 등을 위해 휴무하지만 이 6일

을 제외한 연간 359일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. 은행 등에서는 「선데이 बैं킹」이라는 호칭에서 볼 수 있듯이 일요일만의 서비스로 되어 있다.

그리고 세번째로는 서비스메뉴가 많다는 것이다. 카드외에 통장도 이용할 수 있다. 은행 등에서는 카드에 의한 불출(拂出)과 잔고조회뿐이지만 우편저금은 통장도 이용할 수 있다. 그리고 불출(拂出), 잔고조회, 예입이나 통장기입서비스도 하고 있다.

이와같은 「郵貯 홀리데이서비스」의 장점에 대하여 이용자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.

「은행에서는 수수료도 들고 또한 인출만 되지만 우편저금은 무료인데다가 예입까지 되니까—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局을 늘려줄 것을 희망한다」

「맛벌이하는 나에게서는 무엇보다도 반가운 소식이다. 은행과는 달리 수수료도 없으니까 앞으로는 우편저금만 이용하겠다」

「역시나 우체국은 이용하기 쉬운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한다. 무료인 것이 매력적이다」

「나는 대학생인데 꽤 반가운 소식이다. 앞으로 안심하고 멀리 갈 수 있다. 실시국

을 전국적으로 넓혀주었으면 좋겠다」
이와같은 郵貯홀리데이서비스는 이용자
자들이 폭넓게 호감을 갖고 있는 서비
스다. 관계직원이 휴일에도 출근하여 제

공하는 모처럼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많은
이용을 바라고 있다.

(우정, 1991.5)